자 기 소 개 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후보 김용호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대학원 여러분.
저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박사 1기 김용호입니다.
이번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후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행사들에 참석할때마다 조금 '더 나은' 개선점은 없을까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영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입학한 인연으로 졸업 후 같은 학과 동기들 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오랜 세월을 영남대학교와 연결되어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졸업한 영남대학교 대학원에 다시 다니게 되어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남대학교 대학원이 글로벌 대학원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 원우들 끼리 원활한 소통을 하여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사회학을 배움으로써 얻은 갈등, 인종,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대학원 총학생회를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졸업 후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대교에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공동육아 공동체 어린이 집에서 교육이사로서 자원봉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일과학고에서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고민도 많이 알게 되었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대학원 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과도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하여 대학원을 더 나은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원우들끼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다양한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토대로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제41대 총학생회를 잘 꾸려가고자 합니다. 논문 쓰기, 대학원 생활에 관한 것들을 자
유롭게 얘기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원 원우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학원 원우들과 소통하겠습니다.

" 우리 함께 더 나은 대학원 생활을 해봅시다. "

* 활동경력
1. '눈높이 교육' ㈜ 대교 근무(1991~1998)
2. 8년간 사회적 기업에서 이사로 근무(2025년 현재)
3. 공동육아 공동체 노마어린이집 교육이사 및 이사장 자원봉사(2007~2010)
4. 대구일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원 봉사(2020~2021)